



즉시 배포용: 2017년 11월 1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자살 예방 태스크포스(SUICIDE PREVENTION TASK FORCE)의 출범 발표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리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협력하게 될 연합체

청소년, 퇴역군인,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 전환자 등 성적 소수자(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LGBT) 공동체를 포함한 고위험 집단의 자살 예방에 주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정부 기관, 지역 정부, 비영리 단체, 자살 예방 전문가들로 구성된 리더들을 포함하는 뉴욕주 자살 예방 태스크포스(New York State Suicide Prevention Task Force)를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태스크포스의 설립은 Cuomo 주지사의 2017년 시정방침(2017 State of the State)에서 처음 발표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살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받아 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뉴욕은 이 확산을 종식시킬 때까지 자살을 인식하고 예방하는 일을 계속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입니다. 자살 예방 태스크포스(Suicide Prevention Task Force)는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기반으로 모든 이를 위해 더 강하고 건강한 뉴욕을 건설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지역사회와 집단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뉴욕주 정신보건국(New York State Office of Mental Health)의 집행 부커미셔너인 Christopher Tavella 박사와 로체스터 대학교 의치과 대학(University of Rochester School of Medicine and Dentistry)의 정신과 교수인 Peter Wyman 박사가 공동 팀장을 맡을 예정입니다. 태스크포스 팀원들의 전체 목록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태스크포스 팀원들은 현재의 자살 예방 프로그램(suicide prevention program)의 서비스 및 정책을 검토하고 평가할 것입니다. 팀원들은 지원이 필요한 어린이, 청소년, 성인들에 대한 접근성, 인식 정도, 지원책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권고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태스크포스는 또한 왕따 및 사이버 왕따 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 행위들은 개인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많은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고위험 집단에 집중

이 태스크포스는 성적 소수자(LGBT) 공동체 구성원, 퇴역군인, 정신병 환자, 알코올 및 마약 중독자 등을 비롯한 고위험 인구통계학적 집단 및 특수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뉴욕주의 퇴역군인이 자살 통계의 15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전국적인 통계에 따르면 성적 소수자(LGBT) 청소년들이 성적 소수자(LGBT)가 아닌 동급생들보다 자살 시도가 4 배나 더 많습니다.

다른 고위험 인구 집단에는 중년 남성과 라틴계 여자 청소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욕은 2015 년에 1,652 건의 자살 건수로 전국에서 5 번째로 많은 자살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살 사망의 경우, 치명적이지 않은 자살 시도가 25 회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 년 뉴욕주에서는 자해로 인한 부상으로 21,000 건 이상의 입원 및 응급실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건수의 자해 부상이 불균형적으로 청소년층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태스크포스의 결성은 자살 예방을 우선 과제로 정해서 뉴욕주 전 지역의 모든 지역사회에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려는 주지사의 공약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뉴욕주 정신보건국(NYS Office of Mental Health)의 커미셔너인 **Ann Marie T. Sullivan** 의학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살과 같은 복잡한 문제의 경우, 학교, 지역사회, 기타 이해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 및 행동 의료 서비스 시스템을 포함하여 잘 조화된 공동의 노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지사의 태스크포스는 최고의 정보 및 관행에 협조하고 공유하는 점에 있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욕주 교육부(State Education)의 **MaryEllen Elia**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살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두 번째로 큰 사망 원인이며 전체 지역사회에서 파문을 불러일으키는 비극이라는 사실은 슬픈 현실입니다. 정신보건국(Office of Mental Health)과의 지속적인 제휴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자살 예방 태스크포스(Suicide Prevention Task Force)와 함께, 우리는 자살 건수를 줄일 수 있고 또 반드시 줄여야 국가 전체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NYS Department of Health)의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의학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뉴욕주에서 특히 청소년과 노인들 사이에서 자살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은 비극입니다. 이러한 죽음의 영향은 가족과 지역사회를 통해 파급되어 갑니다.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자살 예방 전략

수립에 있어 태스크포스와 협력하고, 행동 의료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며, 모든 뉴욕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정감독부(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Community Supervision, DOCCS)의 Anthony J. Annucci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정감독부(DOCCS)는 때로는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 일하면서 개인적인 삶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근면한 남녀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데 추력하고 있습니다. 직원 훈련과 위기상황 스트레스 관리팀(critical incident stress management team)을 통해, 우리 부서는 자살 요인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인식의 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자살은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서로를 보살펴야 합니다.”

주립 경찰(State Police)의 George P. Beach II 경찰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뉴욕주 경찰관들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길 원할 때 그 자살 뒤에 남겨진 비통과 파괴의 현장을 목격해 왔습니다. 우리는 원인을 수사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태스크포스 파트너들과 협력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의 Samuel D. Robert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우리의 가장 취약한 시민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것이 자살 예방 활동의 해결책이라고 강력히 믿고 있습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모든 측면에서 자살의 원인을 조사하고 평가하며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효과적인 지원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를 조율할 것입니다.”

아동 및 가정 서비스 사무국(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OCFS)의 Sheila J. Poole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동 및 가정 서비스 사무국(OCFS)은 이 대단히 중요한 태스크포스에 협조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슬프게도, 우울증, 중독, 미디어 영향, 기타 요인 등으로 인해 최근 몇 년 동안 청소년 사이에서 자살이 비극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의 자살을 막기 위해 이 태스크포스가 제휴관계에 있는 주정부 기관들과 협력하여 우리의 활동을 배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Office of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Services)의 Arlene González-Sánchez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의 경우 자살과 약물 사용 장애(substance use disorder)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치료에 대한 접근 방식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욕주 자살 예방 태스크포스(NYS Suicide Prevention Task Force)는 취약한 뉴욕 주민들에게 필요한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뉴욕주 노령화 사무국(New York State Office for the Aging)의 Greg Olsen 국장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살 예방 태스크포스(Suicide Prevention Task Force)를

설립하신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노년층이 겪는 주요한 공중 보건 문제는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일입니다. 이는 종종 건강 악화, 우울증, 자살 위험 증가 등으로 이어집니다. 이 연합은 이러한 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노년층이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해당 지역사회와 연결되도록 필수적인 행동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뉴욕을 미국에서 처음으로 노년층 친화 주로 만들기 위한 주지사님의 강력한 공약을 지지합니다.”

정신보건국(Office of Mental Health, OMH)의 자살 예방 사무국(Suicide Prevention Office, SPO)은 정신보건국(OMH)이 후원하는 모든 자살 예방 활동을 조율하기 위해 2014 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자살 예방 사무국(Suicide Prevention Office, SPO)은 또한 뉴욕의 자살 예방 센터(Suicide Prevention Center of New York)를 재정 지원합니다. 이 센터는 뉴욕에서 자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 개인, 기관, 학교, 지역사회 집단에 무료 또는 저비용의 교육 및 훈련 세션을 제공합니다. 정보는 www.omh.ny.gov/omhweb/suicide_prevention 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